2012학년도 신입학 수시 1차 모집

논술고사 문제지 (인문계열-1조)

※ 본 논술문제에 대한 지적 소유권은 광운대학교에 있으며,
시험종료 후 답안지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원학과(부)			
수 험 번 호		성 명	

※ 답안 작성시 유의 사항

■ 시험시간은 2시간(120분)입니다.

■ 답안지는 2장으로 작성하며, 2장의 답안지 모두에 모집단위, 성명, 수험번호를 컴퓨터용 싸인펜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답안은 검정색 볼펜으로 작성하십시오. (연필, 수정액, 수정테이프 사용금지)

■ 답안지 정정 시에는 원고지 교정법을 따라야 합니다.

■ 답안지에는 제목을 쓰지 말고, 특별한 표시를 하지 마십시오.

[문제 1] 글 (가), (나), (다)는 대중 문화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각각의 관점에서 (라)의 밑줄친 질문에 대해 논하시오. (50점, 700자±50)

(가)

대중 사회론 연구자들은 산업화 시대 노동자 계급의 출현과 더불어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대중 문화를 시민혁명 이전 전통 사회의 고전주의적 귀족 문화와 비교하였다. 그들에게 전통 사회의 유기적 질서와 고전적 문화는 산업화, 대량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 등으로 파괴되어 상실해버린 고귀한 어떤 것으로 간주되었다. 20세기 기계 문명과 더불어 새로운 사회 현상으로 출현한 대중들의 문화는 과거의 특권 계층의 문화에 비해 저속하고 천박한 것으로 보였으므로, 이들은 대중의 일상생활에서 표출되는 다양한 문화 형태들에 그리 큰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들에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문화란 고상하고 우아한 과거의 전통이 살아있는 고전주의 문화와 그 현대적 계승물인 고급문화를 지칭하는 것으로, 대중 문화는 그것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건강하고 불건전한 성격을 띤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들이 엘리트주의적이라고 평가받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다. 다시 말해, 대중 문화는 도덕적이고 미학적인 가치를 침해하는 대상으로 ―또는 궁극적으로는 이전의 어떤 문화보다 열악한 존재로― 그리고 인간의 문화 발달에 있어서 이전에 존재하던, 견고하고 지속적이며 유기적인 문화를 부식시키고 희석시키는 존재로 인식되었다. 결국 대중 사회론의 문화 연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문화를 결여한 사람들의 '문화'에 대한, 스스로를 '문화적'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일방적인 담론이었다.

(나)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스스로의 이론을 비판이론(critical theory)이라 불렀다. 그들이 사용한 비판의 개념은 특정한 사회의 역사적 형태를 정당화하는, 겉으로 드러나 있는 주장과, 그 안에 가려져 있는 현실과의 괴리를 폭로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현실의 모순을 은폐하고 호도하는 허위의식인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은 숨겨져 있는 권력 관계를 드러내고 비판적으로 통찰함으로써 해방에 이르는 경험을 내포한다.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이러한 비판의 개념을 철학, 문학, 예술, 대중 문화 등에 적용함으로써 그 속에 감추어진 현상 유지의 이데올로기를 비판하고, 그것의 극복을 통해 사회 변혁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했다.

프랑크푸르트 학파 가운데 한 사람인 아도르노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량생산되는 대중 음악은 표준화된, 전혀 창조적이지 않은 음악이고, 이로 인해 일회성의 수동적 소비에 그치고 만다는 점에 대하여 통렬한 비판을 가했다. 그가 보기에 대중 음악은 대중들로 하여금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억압이나 차별, 착취의 사실을 잊게 만들고 현 체제에 순응하게 만든다. 그가 대중 음악을 '사회적 접착제(social cement)'라고 규정한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다.

<다음 면 계속>

(다)

문화주의 연구의 원류라 할 수 있는 윌리엄스의 문화관은 문화 연구의 생성과 흐름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의 관점은 정치경제학적 사고를 뛰어넘은 인간의 주체적 실천에 기반을 둔다. 윌리엄스에 따르면, 문화는 정치경제학이 전제하는 정치적·경제적 관계와 같은 방식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처한 사회적 상황과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인간 경험과 실천의 표상이다. 때문에 윌리엄스를 비롯한 문화주의자는 문화를 예술의 영역에만 가두는 편협한 해석을 부인하고, 문화의 의미를 삶의 일상적 영역 전반으로 확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윌리엄스는 문화를 '삶의 모든 양식'이라고 정의하고, 문화의 관념성을 지양하며, 인간 경험과 실천 및 의미 형성 과정을 강조했다. 그는 문화를 보는 기존의 시각이 소수 특권 계층의 지적 성과나 예술 중심주의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보통 사람의 일상적인 행위와 실천을 통해서도 의미와 가치가 산출되는데, 그것이 표현되는 양식이 문화라고 주장했다. 기존의 엘리트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민중이 즐기는 문화가 말 그대로 문화가 되고, 그들의 삶을 노래한 노래가 진정한 노래라고 평가한 것이다. 윌리엄스가 제시한 문화에 대한 개념 확대는 인간의 일과 경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인간이 문화를 만들어간다는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주체로서의 역할에 비중을 두는 작업이기도 했다.

(라)

2008년 10월, 장기하라는 청년이 <싸구려 커피>라는 노래를 포함한 세 곡이 담긴 미니 앨범을 발표했다. 그리고 곧이어 이민기(기타), 정중엽(베이스), 김현호(드럼), 그리고 미미시스터즈(코러스, 안무) 등을 멤버로 하는, 재미있는 이름의 음악 밴드 '장기하와 얼굴들'을 결성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이들이 독립영화 <워낭소리>처럼 열풍을 몰고 왔고, '핫' 트렌드의 주역이 된 것이다. 아무도 예기치 못한 일이었다. 이들의 대표곡 <싸구려 커피>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 싸구려 커피를 마신다 / 미지근해 적잖이 속이 쓰려온다 / 눅눅한 비닐 장판에 / 발바닥이 쩍 달라붙었다 떨어진다 / 이제는 아무렇지 않어 / 바퀴벌레 한 마리쯤 슥 지나가도 / 무거운 매일 아침엔 / 다만 그저 약간의 기침이 멈출 생각을 않는다 / 축축한 이불을 갠다 / 삐걱대는 문을 열고 밖에 나가 본다 / 아직 덜 갠 하늘이 너무 가까워 숨쉬기가 쉽질 않다 / 수만 번 본 것 같다 / 어지러워 쓰러질 정도로 익숙하기만 하다 / 남은 것도 없이 텅 빈 나를 잠근다

이 노래를 둘러싼 정서는 화려하고 세련된 주류의 것이라기보다, 어수룩하고 주변적인 비주류의 감성에 속한다. 이 정서를 '장기하와 얼굴들'은 기존의 스타일과는 다른 음악 속에 담았는데, 그 음악이 엄청난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것이다. 때문에 인터넷에서는 '장기하와 얼굴들'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다. 그들의 음악이 혁신적이라는 의견에서부터 오히려 그들의 음악이 '88만원 세대'의 아픔을 상업적으로 이용했다는 의견까지 다양한 평가들이 나타났다. 비주류가 주류가 되면서 발생하는 아이러니! 과연 이들의 음악을 어떻게 볼 것인가?

<다음 면 계속>

[문제 2] (다)와 (라)를 해석하여 (가)에서 제시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라)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나)에 대해 설명하시오. (50점, 700자±50)

(가)

미국에서 가장 큰 승자독식형 도박 운영회사인 퍼블리셔스 클리어링하우스는 여러 명의 당첨자에게 적은 상금을 지불하는 대신, 극소수의 당첨자에게 막대한 상금을 지불하는 전략을 취하기로 결정했다. 퍼블리셔스 클리어링하우스의 한 임원은 "사람들은 확률 따위에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신경 쓰는 건 상금뿐이에요"라고 말한다. 상금액은 크게 올랐지만, 그것은 곧 당첨될 확률이 극도로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지만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도박에 끼어들기 위해 모여들었다.

(나)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대안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대안 1은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오면 2만 원을 받고 뒷면이 나오면 아무 것도 받지 못하는 게임에 참여하는 것이다(단,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은 같다). 대안 2는 앞면이 나오는지 뒷면이 나오는지에 관계없이 1만 원을 받는 것이다. 즉, 기댓값은 같지만 불확실성이 다른 대안들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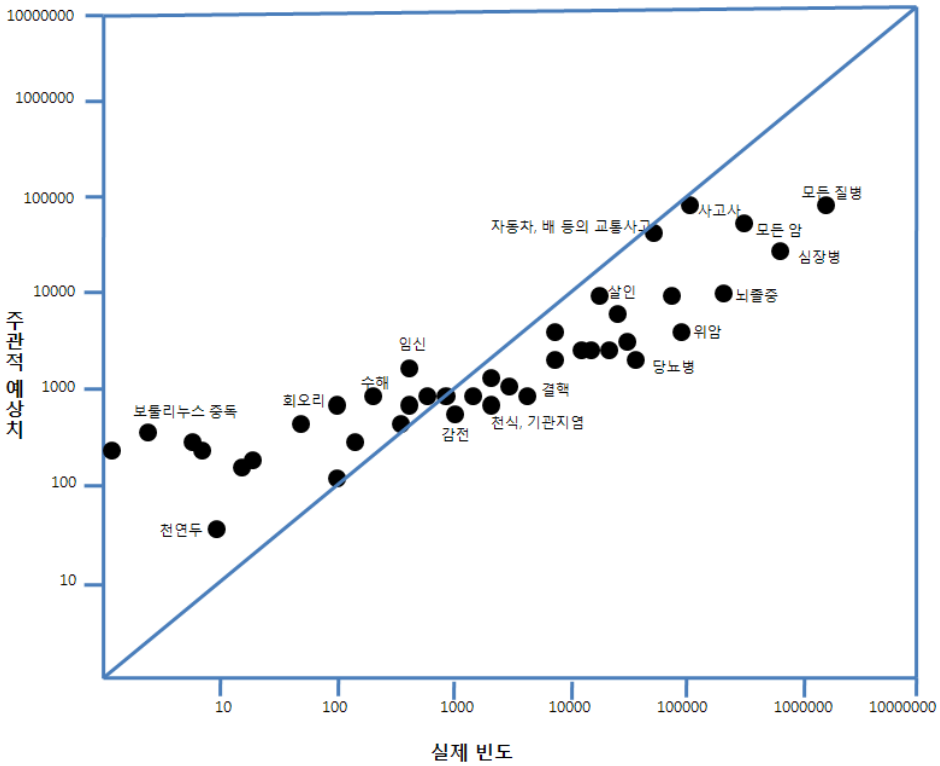
이에 대해 어떤 사람은 대안 1과 대안 2 중 어느 쪽도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기댓값만 동일하다면 불확실성에는 신경 쓰지 않는 성향을 '위험 중립'이라고 한다. 또 다른 사람들은 대안 2를 대안 1보다 선호할 수 있는데, 같은 기댓값이라면 불확실성이 낮은 쪽을 선호하는 경향을 '위험 회피'라고 한다. 이와는 반대로 대안 1을 대안 2보다 마음에 들어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같은 기댓값이라면 불확실성이 높은 쪽을 선택하는 것을 '위험 추구'라고 한다.

합리적인 사람들이라면 위험 회피적인 행동을 보일 것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불확실한 투자 대안의 기대 수익률이 은행 예금과 같은 안전한 투자 대안의 기대 수익률과 같다면 불확실한 투자를 선택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세상에는 일부의 위험 추구자들을 위한 대안들도 있는데, 복권 구입이나 도박 등이 그에 해당한다. 이러한 위험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주로 개인 특유의 요인에 의해 설명되어 왔다. 가령, 어떤 유형의 사람들은 일관되게 다른 사람들보다 위험 회피적일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경우에는 위험 회피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위험 추구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면서도 정기적으로 복권을 구입하는 사람도 있다. 따라서 사람들이 어떠한 경우에 위험 회피 혹은 위험 추구 성향을 갖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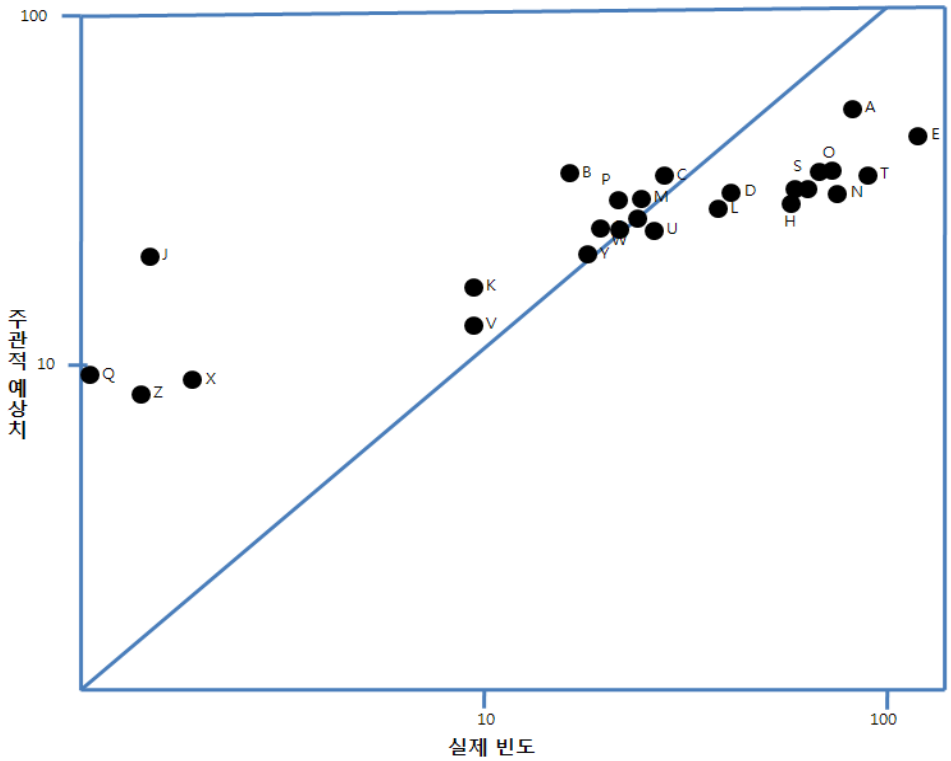
(다)

사람들은 비록 정확한 통계치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자기 나름대로의 주관적 예상치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주관적 예상치에 어떠한 규칙성이 존재하는지를 알기 위해 다음의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림 1>은 미국인들이 어떤 원인으로 사망하는지에 대하여, <그림 2>는 영어 소설에서 각 알파벳의 출현 빈도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예상하도록 한 후 그 조사 결과를 실제의 빈도와 비교한 것이다.

<다음 면 계속>



<그림 1> 미국인 원인별 사망자 수의 주관적 예상치와 실제 빈도



<그림 2> 영어 소설 속에서 알파벳 출현 빈도(1,000자 중)의 주관적 예상치와 실제 빈도

<다음 면 계속>

(라)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하였다. 우선 실험 참가자들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각각의 경우에 배정하였다. 각각의 참가자들에게 주어진 두 대안 중에서 자신의 이득을 늘리거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하도록 요구하였다. 예를 들어, 경우 1에서 제시된 질문은 다음과 같았다.

80%의 확률로 40만 원을 얻고 20%의 확률로 아무 것도 받지 못하는 대안 1과 100%의 확률로 30만 원을 얻는 대안 2가 있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앞으로는 위에서 제시된 대안 1을 (40만 원, 80%), 대안 2를 (30만 원, 100%) 등과 같이 표현하기로 한다. 홀수 경우(1,3,5,7)에서는 이득 상황이, 짝수 경우(2,4,6,8)에서는 손실 상황이 각각 제시되었다. 예를 들어, (-40만 원, 80%)는 80%의 확률로 40만 원을 잃고 20%의 확률로 아무 것도 잃지 않는 대안을 가리킨다. 또한 경우 7과 경우 8에서는 각각 60만 원과 120만 원을 먼저 받은 후 선택하도록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 대부분의 선택이 둘 중 하나의 대안으로 편중되었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이를 기호로 표시하였다. 예를 들어, '(40만 원, 80%) < (30만 원, 100%)'는 대부분이 대안 2를 선택하였음을 의미한다. 구체적 실험 내용 및 결과는 다음 표에 제시되어 있다. 본 조사 결과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인간의 의사결정에 대해 일반화 가능한 설명을 제시할 수 있었다.

이득 상황	손실 상황
경우 1: (40만 원, 80%) < (30만 원, 100%)	경우 2: (-40만 원, 80%) > (-30만 원, 100%)
경우 3: (3억 원, 0.1%) > (30만 원, 100%)	경우 4: (-3억 원, 0.1%) < (-30만 원, 100%)
경우 5: (60만 원, 0.1%) > (30만 원, 0.2%)	경우 6: (-60만 원, 0.1%) < (-30만 원, 0.2%)
경우 7: 60만 원을 먼저 받은 후, (60만 원, 50%) < (30만 원, 100%)	경우 8: 120만 원을 먼저 받은 후, (-60만 원, 50%) > (-30만 원, 100%)

<끝>

논술고사 인문계 1조 모범답안

[문제 1] 모범 답안

인디 밴드 '장기하와 얼굴들'의 대중적 성공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다. 청년 실업 때문에 힘겨워하는 이들의 심정을 대변했다는 의견에서부터, 이들이 '88만원 세대'를 상업적으로 이용했다는 의견 등 다양하다. 이들의 음악을 어떻게 볼 것인가? 글 가, 나, 다에서 제시된 대중 문화를 바라보는 세 가지 입장에서 이를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중 사회론에서는 고상하고 우아한 과거의 전통이 살아있는 고전주의 문화와 이를 계승한 고급문화만을 진정한 문화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장기하와 얼굴들'과 같은 대중 음악에 대해서는 저속하고 미학적으로도 부족한 음악이라고 평가한다.

둘째,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자본주의 사회의 대중음악을 표준화되어 있어 창조적이지 않다고 비판한다. '장기하와 얼굴들'의 음악이 청년 실업과 같은 사회 문제에 대한 비판의식을 담고 있다고 해도 소비주의적 대중 음악에 불과하고, 게다가 주류가 된 이상, 대중들을 체제 순응적으로 만드는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띤 '사회적 접착제'이다.

셋째, 문화주의의 입장에서는 민중의 일상생활 속의 '삶의 모든 양식'을 그려내어 대중과 소통하는 모든 문화를 문화 연구의 대상으로 간주한다. 특히 우리 시대 청년 실업의 애환을 진솔하게 담아내어 대중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싸구려 커피>와 같은 노래는 매우 뛰어난 문화적 생산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이 대중 문화를 바라보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관점에 따라 동일한 문화 현상이 매우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735자)**

[문제 2] 모범 답안

사람들이 당첨확률을 낮춘 대신 당첨액을 늘린 복권에 더욱 매력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 인간은 주관적인 확률을 추측할 때 발생 빈도가 낮은 사건의 확률을 실제보다 과대 추측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정확한 확률을 알고 있더라도 확률이 매우 낮은 이득의 가치를 과대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라)의 실험 결과는 인간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이득 상황인지 혹은 손실 상황인지에 따라서 위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 사람들은 이득이나 손실의 금액 뿐만 아니라 이득이나 손실의 여부 역시 고려한다. 이득 상황에서는 기댓값이 더 높은 대안이 있어도 확실한 이득을 선택하고, 손실 상황에서는 기댓값이 더 낮더라도 손실을 피할 가능성이 있는 대안을 선택한다. 따라서 이득 상황에서 사람들은 위험을 회피하지만 반대로 손실 상황에서는 위험을 추구한다.

둘째, 사건의 발생 확률에 따라 위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 복권 당첨이나 인간 광우병처럼 확률은 매우 낮지만 이득이나 손실의 정도가 큰 대안의 가치에 대해 과대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우 이득 상황에서는 위험 추구적이 되고, 손실 상황에서는 위험 회피적이 된다.

셋째, 준거점에 따라 위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 경우 7과 8을 비교해 보면, 같은 문제라도 이득 상황으로 제시하는지 혹은 손실 상황으로 제시하는지에 따라 사람들의 선택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준거점이 높을수록 손실 상황으로 인식하게 되므로 위험 추구적이 된다. **(741자)**